

# “위대한 광주의 에너지로 4기 민주정부 창출해 달라”

### 민주 광주서 중앙선대위 민심잡기 “달빛내륙철도 등 현안 뒷받침” 아파트 붕괴 수습·원인규명 다짐 “광주가 됐다할때까지 반성·성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여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중앙선대위대책위원회를 열고 호남 민심에 구애했다. 대통령선거를 40여일 앞두고 호남에서도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상황인 만큼 중앙선대위 회의를 광주에서 열고 ‘달빛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중앙선대위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송 대표(상임선대위원장)를 비롯해 윤호중 원내대표(공동선대위원장), 강병원·백해련·김영배 의원(선대위 부위원장),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송 대표 등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이날 달빛내륙철도사업, 광주형일자리 시즌 2, 인공지능 사업 등 광주 주요 현안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화정아파트 아파트 붕괴 사건 수습과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송 대표는 “지난해 6월 9일 학동 붕괴사건 이후에 또 화정동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가 붕괴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너무나 안타깝고, 빨리 희생자들이 수습되고 주변 주민의 피해나 추가 안전사고가 없게 철저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을 체크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어 “달빛고속철도의 차질 없는 착공을 통해 영남과 호남이 획기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지역경제와 민심이 통합되는 시대를 만들겠다”면서 “또한, 광주가 AI(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의 거점

이 되 2024년과 그 이후에도 계속 2단계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광주와 호남이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호남이 새로운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성장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또 “위대한 광주시민의 에너지가 다시 한번 모여서, 어떤 특정 개인의 지지 여부를 떠나서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을 통해 광주 5월의 정신이 훼손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친환경 차 부품공장 유치를 목표로 한 광주형 일자리 시즌 2가 반드시 성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광주가 최첨단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으로 지속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지역 경제와 인재를 키우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어 가는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주는 저희 민주당에 죽어와도 같다”면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반성과 성찰, 변화를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송갑석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실종자들에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선대위 회의에 참석한 이병훈·윤영덕·조오섭·이형석·민형배·이윤민 의원 등은 화정동 아파트 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과 함께 이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하고, 시민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회의를 마치고 화정아파트 크 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 상인 등을 만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책을 논의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면담한 뒤 현장을 나서며 피해자가족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이재명 “3040대 장관 적극 기용…네거티브 중단하겠다”

### 정치혁신 구상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6일 “이재명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내각,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정치혁신 구상을 발표했다.

앞서 최근 그룹인 ‘7인회’가 백의중군을 선언하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차기 총선 불출마 등을 발표한 데 이어 후보가 직접 통합정부 구성 등 정치개혁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쇄신 행보를 이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정파와 연령에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다”며 “정년 세대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든든한 국정 파트너다. 3040대 장관을 적극 등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제 정치교체”라며 “(7인회) 일꾼의 헌신, 송영길 대표의 결단,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는 대결과 분열, 협업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를 굴복하게 만드는 자신들만의 ‘여의도 정치’에 갇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명령대로 하겠다. 대변화, 개혁으로 국민에게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이재명이 먼저 혁신하겠다. 민주당이 먼저 내려놓겠다”며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민주주의, 국민이 승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치교체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으신 줄 안다”며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면목이 없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며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대선 여론조사 브리핑

## 다자대결, 윤석열 44.7%·이재명 35.6%

### 리얼미터 조사…안철수 9.8%

다자대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우위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잇따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직전 조사(10~11일)보다 5.5%포인트 오른 44.7%였다. 이 후보는 1.3%포인트 하락한 35.6%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9.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밖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4%포인트 내린 9.8%,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0.9%포인트 상승한 3.9%였다.

연령별로 보면 윤 후보는 20대(53.0%), 60대 이상(55.2%)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 후보

는 40대(53.2%)와 50대(44.5%)에서 높았다.

당선 가능성을 전망한 조사에서는 윤 후보 48.4%, 이 후보 42.4%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6.0%포인트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90%, 유선 10% 자동응답 전화 조사(ARS)로 응답률은 8.7%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 42.4%, 이재명 후보 35.6%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95%의 신뢰수준 ±3.1%포인트) 밖인 6.8%포인트다. 국민의당 안 후보는 8.8%, 정의당 심 후보는 3.1%로 조사됐다. 조사 방식은 휴대전화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응답률은 5.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대선후보 4자 TV 토론 이르면 31일 열릴 듯 방송3사 제안…민주·정의 “수락”

대선 후보간 첫 TV토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간 4자 토론의 방식으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31일 또는 연휴 직후인 2월 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협의의 결과에 따라 설연휴 기간에 4당 후보가 참여하는 TV토론이 성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방송 3사는 26일 오후 여야 4당에 보내온 공문에서 대선 후보 합동 초청 토론 회를 오는 31일 또는 2월 3일 열자고 제안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톨미팅 일자로 28일을 제시하며, 오는 27일까지 토론 출연 여부와 대체 가능

한 날짜를 알려 달라고 각 당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은 4당간 실무협상 및 방송사와의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단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재명 후보는 방송3사 4자 토론 초청을 수락한다”며 “두 일정 모두 참여가 가능하나, 가장 빠른 31일에 성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심상정 후보는 제안해준 일정 모두 가능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배려수락 좋다는 입장”이라며 “가급적 설 연휴기간인 31일에 토론회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윤 후보만 참여하는 양

자토론을 오는 30일 혹은 31일로 추진했으나, 이날 법원이 국민의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금지하자 다자토론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도 앞서 언론 공지를 통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다자 토론에 관계없다”며 “여야 협상을 개시토록 하겠다”고 알렸다. 안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4자 TV토론을 즉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다자토론 제안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4당 실무협상 및 방송사와의 협의에 따라 이르면 설연휴 기간인 31일 4자 토론이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